

## 공공공사 발주 체계의 개선 방안

### - 분산 발주 체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분산 발주 체계로의 전환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논의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부응해 1994년 6월 「조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달청 발주 범위의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달청 발주 범위의 축소보다 분산 발주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발주 기준과 절차가 다양성이 없이 국가계약법령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지방화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요구의 다양성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획일화된 공사 발주 기준과 절차로는 다양한 요구나 공사의 기술적·지역적 특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분산 발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건설 시장 개방 대책만 하더라도 발주 기준과 기관의 다양화 및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중앙 집중 발주 체계가 아니라 분산 발주 체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현행 중앙 집중 발주 체계를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분산 발주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단계적인 구축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계 이론을 원용해 공공공사 발주 체계의 전환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건설 관련 제도의 개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미시적인 제도 개선 작업은 거시적인 발주 체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발주 체계의 전환에 관한 본 연구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미시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방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